교환학생 보고서

이름	한글	김명환	영문	KIM MYUNG HWAN
파견 국가		독일	파견 대학	예나응용과학대학교

■ 교환학생에 관심 갖게 된 계기 및 지원 동기

저 같은 경우엔 1학년 때부터 졸업 전에 교환학생 꼭 한번 다녀와야지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해외에서 외국인들과 함께 지내면서 다른 나라에서 그들만의 방식으로 산다는 것은 저에겐 큰 흥미로 느껴졌기 때문입니다. 대학생 때 교환학생 신분으로 다른 나라에서 공부하면서 살아보는 게 금전적으로도 저렴하다고 생각했습니다.

■ 출국 전 준비 사항과 주의 할 점(상대교 서류준비, 비자발급 절차, 항공권 구입, 수강신청 및 기숙사 신청 내용 포함)

어느 정도 참고만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18년도 1학기 저 포함 6명이 예나응용대학교로 파견되었고 그 중 5명이랑 같이 항공권을 예약하였습니다. 3월 12일 출국이었고 3개월 전에 스카이스캐너를 통해 아시아나항공, 1인당 83만원에 왕복권을 결제했습니다. 출국 전 상대학교에 제출해야할 각종 서류 작성 시 국제교류원 선생님께 도움을 받았습니다.

기숙사 같은 경우는 신청하면 다 받아주는 것 같고 학교 근처 기숙사인 carl-zeiss 나 siegfried-czapski 로 대부분 배정받습니다. carl-zeiss 같은 경우 siegfried에 비해 건물이 깨끗하고 2-3인실이며 엘리베이터가 있습니다. 그리고 대학교, 버스정류장, 큰 마트가 가깝습니다. (siegfried도 가깝습니다 걸어서 5분정도.. 그치만 siegfried는 오르막길을 올라야합니다...) 그리고 siegfried 같은 경우는 4-5인실이며 carl-zeiss 에 비해 주방이 큼니다. 가장 큰 단점은 시설이 그렇게 좋지 않고 엘리베이터가 없습니다. 참고로 가장 높은 층은 5층입니다. 저는 siegfried에서 살았고 같이 파견된 금오공대 학생들과 다른 외국인 친구들을 집으로 초대해 같이 밥도 해먹었습니다. 샤워할 때 수압이 약했고 5층을 오르내리라 힘들었지만 나름 만족하면서 지냈습니다.

독일 도착하시면 비자발급과 수강신청 외에 집 계약, 보험가입, 은행 계좌 개설.. 등을 하시게 되는데 현지대학의 tutor 분들이 도와주시기에 크게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하지만 팁을 드리자면 저희 같은 경우는 개강 전 여행을 다녀오고 싶어서 tutor 분께 저희 일정을 미리 말씀드리니 개강 전 해야 할 일들을 1주일에 끝내주셨습니다.

그리고 출국 전에 최소한의 겨울옷을 가져가는걸 추천 드립니다. 저 같은 경우는 3월12일에 출국하였는데 1달 정도 추웠던 것 같고 그 이후로는 더웠습니다. 독일에서도 괜찮은 옷들 많습니다.

■ 파견대학 소개(크기, 지리적 위치, 기후, 주변 환경 내용 포함)

일단 예나는 작은 도시이고 튀링겐주에 속해있습니다. 독일에서 지리적으로 중간에 위치한 주입니다. 따라서 주변 큰 대도시인 뮌헨, 베를린, 프랑크푸르트로의 이동이 용이합니다. 4월 중순까지 추웠던 것 같고 그 이후로는 더웠습니다. 예나에는 여러 나라에서 교환학생들이 많이 옵니다. 일본, 중국, 인도네시아, 다른 여러 유럽국가 다양한 친구들을 만날 수 있습니다.

■ 수업 및 학사 관련 사항(수강과목 포함)

예나대학교는 주로 전공수업을 듣는 대학교(Ernst-Abbe-Hochschule)와 영어수업을 듣는 대학교(Friedrich-Schiller-Universität Jena)로 나뉩니다. 저 같은 경우는 Hochschule에서 FEM(요한요소법) 과목 1개와 Friedrich-Schiller-Universität에서 영어과목 5개를 들었습니다. 여러분이 파견될 대학교는 Ernst-Abbe-Hochschule 이고 만약 Friedrich에서 영어과목을 듣는다면 한 과목당 20유로를 내야 합니다. 참고로 Hochschule 수업은 석사과정이고 저 같은 경우엔 절반 정도 듣다가 포기했습니다.

■ 숙소 및 거주 관련 사항(기숙사비, 생활비 내용 포함)

- (1) 초기 정착비 : 기숙사 보증금(300유로), 기타 생활품
- (2) 기숙사 월세 : 207유로
- (3) 휴대폰 요금 : 1달 약 10유로
- (4) 보험비 : 89유로
- (5) 헬스장 : 23유로
- (6) 인터넷 요금 : 10유로

한 달에 숨만 쉬어도 공과금으로 약 40만원정도 나갑니다. 어느 정도 오차가 있으니 참고만 해주세요 ;)

■ 파견대학 국제팀 프로그램/서비스 및 교환학생 활동 소개

현지 대학교에는 저희 학교 국제교류원 같은 부서에서 교환학생들에게 각 종 행사, 수업 관련 정보 등을 알려주시고 행정적으로 많은 도움을 주시는 Robert분이 있습니다. 성격도 너무 좋으셨고 많은 도움을 받았습니다. 예나대학교에는 정말 다양한 동아리가 있습니다. Kpop dance, 각종 스포츠 등 관심있는 동아리에 들어가시면 되고 코리안 슈탐티쉬라고 한국을 좋아하고 한국문화에 관심있는 학생들이 격주로 모여 이야기하는 모임이 있습니다. 이 모임에서 한국 다른 학교에서 온 친구들과 여러 외국인 친구들을 사귄 수 있습니다.

■ 학교 부대시설 및 추천 하고 싶은 동아리

학교 내에 MENSA 라고 학생 식당이 있습니다. 가격은 저희 학식이랑 비슷했던 것 같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독일식 식사가 맞지 않아서 집에서 주로 해먹었습니다. 학교 도서관은 깔끔하고 좋습니다.

저는 동아리 활동을 열심히 하지 않았기에 딱히 추천 드릴 게 없네요. 같이 온 친구들이랑 K-pop dance 동아리를 했었는데 저는 중간에 포기했지만 다른 친구들은 마지막에 사람들 앞에서 공연도 했습니다. 춤을 좋아하시면 이 동아리를 추천드리고 각종 댄스, 스포츠 관련한 동아리가 많으니 관심 있으시면 한 번씩 해보는걸 추천드립니다.

■ 문화적 차이 및 향후 파견 학생들을 위한 TIP

독일에서 느낀 문화적 차이는 독일에서의 삶은 전체적으로 여유롭다는 겁니다. 가끔 유럽 내에서 여행하다보면 동양인 차별을 경험하실 텐데 그냥 가볍게 무시하시면 됩니다. 참고로 독일인들은 너무 젠틀합니다. 독일인한테서 동양인 차별을 당한 적은 없습니다. 글 중간중간에 나름 팁을 적어놨는데 도움이 될지 모르겠네요. 그냥 제가 드리고 싶은 말은 저 같은 히키코모리(?)도 친구들 잘 사귀고 잘 적응하면서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독일가서 적응 못하면 어떡하지 라는 생각은 안 하셔도 됩니다.

■ 교환학생 프로그램을 통해 느낀 점, 배운 점

교환학생 가기 전에 많은 고민을 했습니다. 한 학기 교환학생으로 다녀오면 졸업학점(전공학점 부족)에 대한 걱정과 갔다와서 역학기로 전공 수업을 들어야 한다는 부담감 등 학업적으로 많은 부담이 있었

습니다. 하지만 교환학생 신청 전에 미리 학과에 전화해서 역학기에 들어야할 전공수업의 선수과목 이수여부를 알아봤고 졸업학점을 원래 졸업년도 안에 다 채울 수 있는지 미리 계산을 했습니다. 이러한 부담감과 기회비용을 안고 독일로 떠나기로 결정한 것이어서 처음 마음가짐은 독일에서 외국인 친구들을 많이 사귀어서 영어 스피킹 실력을 늘리자, 가능한 많은 전공학점을 챙겨오자(저 같은 경우는 FEM 수업만 전공학점으로 인정 받을 수 있었습니다.) 였습니다.

100% 솔직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학업적으로 욕심이 있으신 분들에게는 해당되지 않겠네요. 하지만 막상 독일에서 생활하다 보면 초기 마음가짐과 다르게 학업적으로 많이 손을 놓게 됩니다. 저는 솔직히 말해서 잘 놀고 잘 쉬다 온 것 같습니다. 평생 갈까 말까한 유럽여행을 5개월 동안 한 것 같습니다. 교환학생 가서 즐길 수 있을 때 최대한 즐기고 오세요. 예쁜 것 눈에 많이 넣어오세요. 좋은 추억 많이 만들어오세요. 제 인생 5개월의 교환학생 기간은 평생 잊지 못할 기억으로 남을 것 같습니다.

(cf. 물론 부모님께 경제적으로 지원을 받는 입장에서 부모님께 죄송스럽고 교환학생 가서 놀고 온다는 것에 대한 약간의 죄책감을 가질 수 있습니다. 뭐,, 갔다와서 열심히 하면 됩니다)

■ 기타(사진, 건의사항, 등)

지원금 부족이 아쉬웠습니다.